<<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 및 후원회 연설 전문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보니까, 또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주신 것만 해도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제게 열렬히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수 원내총무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가 여야 간에 아주 어려운데... (박수) 정말 뜨겁게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돌려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항상 미안하고 또 항상 짐으로 제게 지워져 있습니다. 뭔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박수)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비전을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제5공화국) 때 내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놨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어요.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외입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 화해, 노사 협력, 지식 기반 사회 (박수)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 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게 미래가 있는가? 한국에게는 두 개의 선택밖에 없다.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퇴보해서 주저앉느냐. 그 두 가지의 선택만 있을 뿐이지 제자리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기술을 혁신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로 가야 한다. 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한국이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의문스러운 하나의 조건이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성은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써 놨어요. (박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쉬어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원칙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모든 사람이 규범을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에요.

97년 저는 정치적으로 무소속에 있었습니다. 96년에 3김 청산을 외치면서 민주당에 잔류했어요. 96년 4.11 총선에서는 실패했어요. 97년 연말에 국민회의에 다시 입당을 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3김 청산을 외치던 제가 3김 중의 한 분이 이끌고 있는 국민회의

에 입당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히 국민회의에 입당했어요. 세대교체도 좋고. 3김 청산도 좋지만, 이 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 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비리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 놈아 모난 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고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박수)

그것을 해야겠기에 또다시 영남 사람 노무현이 호남당에 들어갔습니

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누가 권력 앞에서 권력이 두려워서 말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이 역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꽃 피워 나갈 때 우리 한국에 원칙이 바로 서고, 신뢰가 바로 서는 사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

한 시대의 가치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은 역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회의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원칙이 이기는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수)

88년 13대 국회에 당선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3당 통합이 있었고, 그리고 14대 총선은 통합민주당으로서 부산에서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95년 부산시장 선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96년 종로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7월 21일 종로 보궐 선거에서 제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말 귀한 배지였습니다. 6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다시 반쪽짜리 국회의원에 제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종로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노고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종로를 위해서 일해야지요. 국회의원 수첩 딱 끄집어내면 맨 첫 번째 사진이 올라오는 영광된 자리에서 기분도 좀 내야지요. 종로 국회의원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부산에 가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걱정했습니다. 종로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던 많은 유권자들이 유권자를 배신한 거 아니냐 고 손가락질할까 봐 정말 가슴 졸였어. 그러나 정말 고맙게도 종로의 많은 유권자들은 “당신 뜻을 알겠다. 가봐라. 그런데 되겠냐?”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1년 반 가까이를 뛰었어요. 모두들 제가 당선된다고 했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 당선을 점쳤고, 부산에서 정치평론을 한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노무현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13일 저녁 부재자 투표를 깨고 지역 투표함을 열자마자 이미 대세는 결정됐습니다. 노무현의 패배였어요. 이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울어야 합니까? 통곡을 해야 합니까? 제 아내 보기 미안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명연설집>. 거기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사로 했던 연설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그 지루하고 힘든 전쟁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마당에, 거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가는 마당에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적을 섬멸하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역사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곧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는 연설문.

단지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과 북이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기 하느님에게 상대방을 응징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증오의 탑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를 함께 걱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로 연설을 끝맺고 있어요. 저는 그저 링컨이 그저 노예 해방을 시켰던 사람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연설문에 나타난 그의 철학은 이미 그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상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너무 힘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항상 정의의 깃발을 들고 또 정의의 편이 승리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큰 부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도 링컨 같은 대통령 한 번 왜 나올 수 없는가? 왜 정의 깃발을 세워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역사는 없는가? 해방이 된 나라, 해방이 된 우리 한국의 목표는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나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도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도 우리는 하지 못했고, 좌우가 나누어서 싸우고 친일파들이 한국의 정치에 실권을 잡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 이외의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는, 친일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감수해야 했잖습니까? 왜 이 왜곡된 역사를 우리는 가지게 됐어요? 분열 때문이었어요. 해방 이후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하나로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정치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뺏기고 말았잖습니까?

87년 6월항쟁에 우리 민중은 승리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항복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민주화 진행의 과정은 더디기 짝이 없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개혁 피로증에 빠져있다고 해서 이제 개혁 자체를 싫어하는, 이제 개혁이란 말을 꺼내기도 국민들 앞에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십 년 군사 독재의 기간 동안 특권이 판치고 특혜가 판을 치고 부정

과 부패 부조리가 판을 치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면, 이제 민주 정부가 출범한 새로운 시대에는 부정과 부패, 특권과 비리가 청산되고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 그리고 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 중산층과 서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발언하고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수)

지금 이 시기 개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흔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민주 세력이 흘금흘금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분열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분은 정권을 잡았지만 그 기반의 절반은 수구 세력이고 지역적으로 절반의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60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지만, 그러나 지지 기반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절반의 정권이었어요.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화합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 개혁의 방향을 이렇게 혼미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년 뒤에 우리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다시 동서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것입니까? 동서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누가 이기더라도 절반 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동서를 하나로 화합하고,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신뢰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수) 내년 12월,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개표하는 그날, 이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다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선거를 우리는 치러내야 합니다. (박수)

제가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당에 있으므로 호남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남이니까. 태생이 영남이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영남의 지역감정으로 나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90년 3당 통합 때 야당이 여당으로 가

는 것은 정도가 아닐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당과 야당을 호남과 비호남으로 나눠 놓으면 영원히 정치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지역 대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3당 통합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합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작은 민주당'을 만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무너진 야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대로 작은 당을 가지고 91년 연말에 우리는 평민당과 당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여당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끼리 통합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통합인 것이에요. 그 통합한 일에 통합에 책임을 지고 92년 부산에서 14대 총선에 출마했어요.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을 지켰어요.

부산시장 선거를 출마하려고 할 때 내 모든 친구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부산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수) 우리 민주당이 영남에서도 지지받고 호남에서도 지지받는 전국적 정당이 됐을 때 그때 정치의 지역 구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한국의 정치가 비로소 제자리에 갈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저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는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가서 다시 도전했어요. 저는 한 번도 호남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 한 번도 내 고향 영남을 적대한 일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고향에 신의를 지켰고 내 고향을 위해서 뛰었어요. (박수)

나는 호남에서 그냥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호남의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호남의 누구에게도 신뢰받는 정치인입니다. 나는 비록 영남에서 당선될 만한 표를 받지 못했지만, 영남의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못할 만큼 당당합니다. 그리고 영남에 저를 찍지 않는 사람도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에 대해선 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 '노무현' 외침)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낼 것입니다. 호남에서도 지지받고 영남에서도 이회창 총재를 앞서는 지지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재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 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 지역 구도를 가지곤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 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박수) 가능합니다. 이것은 90년 3당 통합으로 붕괴된 파괴된 한국의 정치 구도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 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 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박수)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기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 주고 쑥떡쑥떡 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 들고 이 당 저 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박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역 구도 속에서 97년 12월 많은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많은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3김 청산'이란

말 한마디 믿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면서 한나라당에 많은 사람들이 입당했어요. 가본 결과 이것은, 이것은 새로운 정치가 아니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한나라당의 권위주의는 3김 빰치는 권위주의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려. (박수)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대화와 화해를 지지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이에요. 한 달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참 박수하고 이게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힘이... (웃음, 환호)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노무현’ 외침)

감사합니다. “노무현이가 말은 제법 잘하는데 진짜 정권 잡겠나?” 염려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수) 저 부산상고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성공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도전했고, 그리고 또 장관도 했어요. 하는 것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면 다 됩디다. 이번엔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해냅니다. (박수) 계보가 없지 않냐, 계보가 없지 않냐, 계보 정치의 시대는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보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93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을 가시고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 나가야 할 때 저는 전당대회에 당당히 도전해서 최고위원에 선출되었고, 그리고 다음 당내

경선 또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저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계보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중앙집권의 시대가 아니라, 분권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로 간다. 이 지방화의 새로운 걸음을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많은 지방 의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함으로써 비록 계보는 아니라도, 비록 보스와 부하의 관계는 아니라도 정치적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연구소에 손님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많이 왔습니다. 제 계보는 아니지만, 정정당당한 원칙으로 정책을 앞세우고 옳은 일을 하면 동지는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박수)

무게가 없잖냐, 무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머리를 좀 뻣뻣한 사람, 전두환 대통령처럼 머리를 이렇게 깎을 수는 없고 저도 머리에 후까시 좀 넣겠습니다. 넣고, 목에 힘 좀 주고, 배 좀 내밀고 힘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무게가 잡히겠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시골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도련님 대접 받아본 일 없고, 그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도 이제는 좀 잘 먹고 잘살고, 이제는 좀 잘 차리고, 그야말로 뽄때 좀 나게 살고 싶었습니다만 어떻게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무료 변론해주고, 그 사람들 감옥 갔을 때 면회 댕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제가 감옥까지 한번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박수) 품위 있고 정말 근사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무게 잡히게 자신을 가꾸지 못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링컨 대통령.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연방 하원 의원 경력 딱 2년밖에 없고 11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놀다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양반이 빗질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머리에 새집을 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항상 링컨을 비웃는 언론이 '빗질 좀 하고 다녀라.' 그리고 별명이 시골뜨기 대통령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세계 역사에 최고의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직 별로 세련되지 않고 별로 광나지 않고 별로 무게 안 잡히지만 저도 이제 대통령 되면 링컨처럼 해낼 수 있습니다.

(박수) 연설 좀 합시다. 연설 방해하는 박수는 사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의 외모에 무슨 힘이 들어가 있습디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의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습디까? 그들은 부드럽고, 가볍고 그리고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대통령상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여러분 가까이 새로운 서민의 시대를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공권력으로 강한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만듭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헤쳐내고, 그 엄청난 반대와 비판을 제압하고 마침내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던 힘은 '신념'이었어요. 확고한 신념 그리고 용기, 그리고 강한 실천력. 그것은 외모의 위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뽑아드는 공권력의 칼이 아니라 강한 철학적, 도덕적 신념과 그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추진력인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하나를 위해서 이 당 저 당 줄을 바꾸었을 때 저는 금배지 무시하고 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위처럼, 태산처럼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서 있어야 할 곳을 서 있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박수)

이제 제 얘기가 너무 길었다 싶습니다.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그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대 그것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고 계

십니다. 제가 그대로 인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수)

남북대화에 성공하면 2020년 우리 한국에겐 1억에 가까운 내수시장이 열리고 7억에 가까운 동북아 시장이 열립니다. 그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거 김대중 대통령 하고 계십니다. 그거 제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과 갈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시기에 저는 그 분쟁의 현장에 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할 때, 의약분업 전 국민이 불안할 때 저는 현장에 나설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임석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두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농민 대표들과 행정부처와 학자들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현장에 항상 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쁜데 1년 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의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해소와 조정의 문제를 직접 관장해야 하고. 전략적, 전략적, 말이 틀렸습니다. 국가의 전략 기획 업무를 직접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루하고 긴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중간중간 제게 격려의 박수를 주셔서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해버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

치의 시대, 새로운 시대로 우린 넘어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무현이는 어쩐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낡은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저항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장이 가방 들고 54명 국회의원 거느리고 야당 하다가 여당으로 가면 찍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버티니까 이게 이상한 정치인이 된 것이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박수) 제가 새로운 것을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계보에 줄 서본 일이 없어요. 올바른 방향의 올바른 정치를 함께 하고 있을 때 저는 동지들과 함께했을 뿐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경험을 가진 경륜을 가진 선배님들이 앞서서 정치를 이끌어갈 때 저는 군말하지 않고 선배로 깍듯이 모시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제게 정말 감동을 주시고 정치를 제대로 배우게 해주신 우리 김원기 고문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박수) 저더러 가끔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독불장군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 김원기 고문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원기 고문님이 기라고 그러면 제가 독불장군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독불장군 아닙니다. (박수)

이제 낡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슴에 뭔가 답답함은 있는데요, 막혀서 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오늘 얘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더랬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 안 공식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노무현’ 외침)

그리고 저는, 저는 우리 당의 당 쇄신발전특별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경기 규칙을 만들어주더라도 저는 그 규칙을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저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작은 규칙이 아니라 뜨거운 여러분의 가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불리하든 유리하든 저는 규칙을 전부 수용하고 그리고 힘껏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만일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또 깨끗이 승복할 것입니다. (박수)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승복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길 것이니까요.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제가 정치를 바르게 해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제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도를 걸어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후보가 되는 대로 정계를 재편해 버리고, 이회창 후보는 영남 일부분에서 고립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박수)

두 번째로,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우리 당의 지지도가 아주 나쁘지 않을 때에는 이회창 총재한테 항상 제가 앞섭니다. 수도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호남의 표와 영남의 표를 함께 받으면 누구보다도 많은 표를 제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깁니다. 그래서 승복할 생각이지만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